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22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7월 13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맨 뒤에서 1등

사람은 누구나 달리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립니다. 저에게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바로 안산을 세계 최고의 멋진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잘 아는 분야라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난 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난 2년을 달리다 보니 맨 뒤에서 1등입니다, 고속 성장과 성과주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도시가 바뀝니다. 다시 시작하는 2년도 더욱 치밀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의 등을 보며 언제나 맨 뒤에서 뛰는 시정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장 제종길

특별 인터뷰
제종길 안산시장

살기 좋은 도시 2년, 기반 닦은 진짜 출발은 지금부터

지난 6월 27일 오후, 브라보안산 시민기자들이 시청 북카페에서 민선6기 2주년을 맞이한 제종길 안산시장을 만났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누구보다 힘차게 지난 2년을 보낸 제 시장은 활짝 웃으며 기자단 일행을 맞았다. 그동안 시장소식을 전달했던 기자의 입장이었으나 오늘은 안산 시민으로서 민선6기 2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외롭고 부담감도 있지만,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한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시민기자들과 시청 북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01 초지역에서 KTX타고 부산·광주간다

안산이 수도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탈바꿈합니다



Q1. 신안산선, KTX 정차역 등이 생겨 우리 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에, 무엇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산에서도 KTX를 타고 부산·광주를 갈 수 있습니다.

인천발 KTX의 초지역 정차가 확정됐습니다. 인천발 KTX는 인천 송도역을 출발하여 안산의 초지역, 화성의 어천역 등 2개 역만 거쳐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진입하게 되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착공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안산시민이 광명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없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조만간 초지역은 소사-원시선, 4호선, 수인선, KTX가 몰리는 대규모 역세권으로 성장하여 안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이 되면 소사·원시선을 타고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사-원시선이 2018년 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부천 소사역과 안산 원시역을 잇는 노선인데 안산에는 석수골, 선부, 화랑, 스마트허브, 원시역이 생깁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이 소사-원시선은 고양-부천-안산을 거쳐 현재 공사중인 서해선을 통해 예산-홍성까지 이어주는 노선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 노선을 통해 북한지역을 거쳐 유럽이나 시베리아로 갈 수 있는 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 타고 30분안에 여의도까지

안산 한양대와 여의도, 서울역을 잇는 신안산선은 안산의 광역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우선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역을 거쳐 여의도를 잇는 1단계 구간 사업이 2018년 착공되어 2023년 완공될 예정이고 이후 여의도역과 서울역을 잇는 2단계 구간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노선의 우리 시 역으로는 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역이 있습니다. 또한 화성 국제테마파크역과 먼저 개통될 소사-원시선을 통해 초지동·선부동을 지나 시흥시청역과 광명역을 이어주는 노선도 신안산선 1단계 구간 사업에 포함 추진되어 안산-시흥-화성간 전철 이용도 더욱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된 교통효과로는 서울 가기가 편리하고 무척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가는데 현재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이 노선으로는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수도권 주요 도시에 비해 뒤졌던 서울 접근성이 대등하거나 우월하게 됨으로써 우리 도시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 한양대와 서울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을 잇는 신안산선의 종착역이 한양대 후문까지인데 종착역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인근의 89블럭과 90블럭의 개발이었습니다. 때문에 시는 얼마 전 90블럭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 **위 치**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번지(사동 90블럭)
- **사업면적** 369,835㎡(111,875평)
- **협상대상** GS건설컨소시엄
- **매각내용** 토지매각금 : 8,012억 원
기부채납 : 700억 원 상당
발전기금 : 2,000억 원(세후 9% 순이익초과발생시)



● 개발면적

| 구분 | 합계 | 비주거 | | | | | | | |
|--------|---------|---------|---------|---------|------|--------|--------|--------|--------|
| | | 주거 | 비주거 | | | | | | |
| | | 공동주택 | 소계 | 복합R&D | 교육시설 | 판매/근생 | 호텔 | 문화/예술 | 공공 |
| 연면적(평) | 559,560 | 323,557 | 236,003 | 128,362 | 621 | 47,020 | 40,000 | 10,000 | 10,000 |

수인선 상부공원화사업과 함께 복선전철 2017년 개통임박

현재까지는 도로교통이 편리했다면 향후에는 철도교통이 매우 편리해져 안산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교통 중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선 2017년 말에 안산시 구간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됩니다.

수인선은 수원-안산-인천을 잇는 철도노선인데, 이 사업으로 수원역과 한대앞역이 연결되고 사리역도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본오아파트~용신교 구간은 반지하화로 조성되는 지상부에 주차장과 휴양 및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면서 주변 경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신성장 동력으로 안산의 경제 기반이 확 바뀝니다

사동 90블럭 개발 이익금으로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Q2.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경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산업육성, 상권 활성화, 주택문제 등에 대한 시의 큰 그림과 구체적인 노력들을 말씀해 주세요.

90블럭 개발이익금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동 90블럭 개발로 우리 시의 연간 자주재원을 훨씬 상회하는 8천억 원의 토지매각 대금 수입과 더불어 취·등록세 등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신·구 도시간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안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및 관광산업, 마이스산업, 도시재생사업, 스마트 팩토리사업 등에 재투자하면 앞으로 안산의 경제 기반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창업·취업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전국적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침체·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하반기 대비 2015년 하반기 우리 시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5,000명 증가) 및 경제활동참가율(0.8% 증가), 고용률(0.9% 증가)이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우리 시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일자리정책 즉 취업·창업지원정책도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산업경제정책은 결국 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관계되는 것으로 일자리정책은 산업경제정책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청 및 각 동의 일자리센터 운영과 각종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산시 고용통계

• 2014년 하반기 / 2015년 하반기 비교 자료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단위: 천명, %)

| 구 분 | 15세이상 인구 | 경제활동 인구 | 취업자 |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
|----------------|----------|---------|-------|----------|------|------|
| 안산시 | 2014 2/2 | 592.8 | 354.3 | 340.5 | 59.8 | 57.4 |
| | 2015 2/2 | 592.9 | 359.2 | 345.5 | 60.6 | 58.3 |
| 전년동기대비 증감(하반기) | | 0.1 | 4.9 | 5.0 | 0.8 | 0.9 |

| 구 분 | 15세이상 인구 | 경제활동 인구 | 취업자 |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
|----------------|----------|---------|--------|----------|------|------|
| 전국 | 2014 2/2 | 42,646 | 26,809 | 25,951 | 62.9 | 60.9 |
| | 2015 2/2 | 43,150 | 27,137 | 26,298 | 62.9 | 60.9 |
| 전년동기대비 증감(하반기) | | 504 | 328 | 347 | 0.0 | 0.0 |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광덕시장과 한양대 앞 등 2개소에 30실 100여 명의 청년창업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 향후 더 많은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30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내 기업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사1+ 청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기업의 지역청년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채용실적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1조 원대의 서울반도체 연결통로 규제 해소를 통해 서울반도체 본사의 안산 이전 등 7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4천 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안산시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안산시민 우선고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적지않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창업공간(청년큐브)조성 지원

• 안산시 '청년플랫폼' 네트워크 구상도



광덕종합시장 전경



예술대 캠프 중앙홀



한양타운 전경



한양캠프 창업공간

서울예술대 캠프

- 위 치 상록구 광덕산간길 20, 광덕종합시장 3층
- 면 적 813.594㎡(약 247평)
- 시설현황 입주실(20개), 세미나실, 다목적실, 멘토링실, 카페테리아 등
- 입 주 팀 20팀 68명
- 분 야 문화예술 18(문화기획 4, 출판 3, 미디어 3, 영상 2, 공연 6) / 홍보마케팅 등 2

한양대 캠프

- 위 치 상록구 한양대학로 60, 한양타운 4층
- 면 적 314.95㎡(약 90평)
- 시설현황 입주실(10개),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등
- 입 주 팀 10팀 34명
- 분 야 IT(웹, 앱) 5 / 브랜드 기획·홍보마케팅 2 / 문화콘텐츠(게임) 등 3

기업경쟁력 강화, 근로환경개선 및 산업단지 내외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역점을 두고 있고, 관내 중소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안산형 강소기업' 즉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중입니다. 현재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논문 발표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 사업기간 2015. 1 ~ 2018. 12(총 4년간)
- 총사업비 50억원 (단위: 억원)

| 구 분 | 1단계(상용화 집중지원) → 2단계(기술마케팅 지원) | | | | 계 |
|-----|-------------------------------|------------|------------|------------|----|
| | 1차년도('15년) | 2차년도('16년) | 3차년도('17년) | 4차년도('18년) | |
| 예 산 | 5 | 15 | 15 | 15 | 50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 추진

46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주차장확보, 공원 조성 등의 재생 및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낡은 기반시설과 악화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고도화 및 첨단 IT 융복합·기계산업의 글로벌 산업단지로 변모를 꾀하여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특히 스마트 팩토리사업의 경우 국비100억 원, 경기도 115억 원, 안산시 200억 원을 포함해서 3년간 1,134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낙후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질적·양적 성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및 ICT 기술의 성공적 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정부 지원계획>

- 안산소재 동양피스톤의 대표스마트공장 고도화에 100억 원 투입
- 안산(90블럭)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조성(165억)
- KT중심 산업용 IOT 통신기술 검증 / 상용화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449억 원)

과감한 공단 약취 개선 사업 투자

염색단지 등에서 유발되는 약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산업경쟁력 및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약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취문제로 시 이미지가 나빠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예산과 행정력이 많이 들더라도 단기간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공장 거점 클러스터

| 데모 스마트공장 | "Digital Sync" | 대표 스마트공장 | 인력 양성 |
|--------------------------|-------------------------------|---|---------|
| kt (스마트 통신인프라) | 공급사슬관리, 생산운영관리 제품개발, 현장자동화 | HYUNDAI MOTOR GROUP (2·3차 협력사 지원) | |
| 지자체, 산단공, 경기혁신센터 | 대표 공급기업(지멘스, LS산전 등 200개사) | | 대학, 연구소 |
| 산업부(스마트공장추진단) | | | |



사동 90블럭 컨벤션 및 스마트팩토리 조감도

마이스산업 육성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생태국제회의의 「ESP 아시아총회」가 개최되었고, 올해 9월에는 해양국제회의의 「PNLG」가, 내년 5월에는 생태관광국제회의의 「ESTC」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는 우리 시 마이스산업의 성과이자 마이스산업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이스산업연도별 투자계획

*마이스산업이란 _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마이스 산업기반조성

추진과제

컨벤션시설 확충, 마이스관련제도 정비 등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비고 |
|------|------|------|-------|------|-------|
| 2 | 528 | 408 | 1,180 | 971 | 3,089 |

마이스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과제

마이스 스타기업 육성,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시장개발 등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비고 |
|------|------|------|------|------|-----|
| 9 | 152 | 122 | 167 | 162 | 612 |

마이스 인적자원 역량강화

추진과제

마이스 교육 강화 및 콘텐츠 개발 등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비고 |
|------|------|------|------|------|-----|
| 1 | 45 | 48 | 48 | 46 | 188 |

마이스 상품개발

추진과제

국제회의·행사 개최 계획 및 신규 유치 지역자원 연계상품 개발 등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비고 |
|------|------|------|------|------|-------|
| 60 | 787 | 312 | 402 | 287 | 1,848 |

도시를 성장시키는 주택 보급과 재생사업 추진

올해로 안산시 승격 30년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 도시가 공단배후도시로 주택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거의 4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된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대량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약 40여 개 정도의 주택단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약 20년이 걸리고, 우리 시에는 늘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당분간 살 집이 필요하여 주택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이웃 도시보다 임대료가 올라 많은 주민들이 이웃 도시로 이사를 나가 현재 인구도 줄고 있는 등 우리 시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90블럭 아파트단지 개발로 외부 인구를 유치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3 Made in , 안산

안산의 미래 가치는 숲에 있습니다



Q3. 시장으로서 지난 2년간 정말 잘했구나 싶은 한 가지를 꼽는다면?

‘숲의 도시’ 미래비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재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숲의 도시’로서 우리 시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길이고 긴요한 도시 비전을 정립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Q4. 시민으로서 이제는 ‘숲의 도시’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해 졌는데요. ‘숲의 도시’ 비전은 시의 장기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숲의 도시’ 정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적 지표로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을 2014년 ‘숲의 도시’ 비전 선포 당시 5.77㎡에서 2030년까지 15㎡로 늘리는 것이었는데, 2016년 현재 6㎡로 늘어나는 등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지난 ESP 즉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총회를 통해서도 우리 시의 ‘숲의 도시’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과 지지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악취, 시화호 수질 등 ‘환경문제’로 인해 우리 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관점’으로 극복해야 하고 시민들이 우리 시의 녹지, 숲, 공원

등을 자랑스러워 하기에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지요. 악취도 많이 사라졌고 대기환경도 좋아졌으나 현재까지도 우리 시에 드리워진 회색빛, 공해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도시가치를 높이는 것이 ‘숲의 도시’ 정책의 주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숲 정책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도시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들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숲은 모든 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창의력을 심어주고 심성을 곱게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이 ‘숲의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며, 숲처럼 효용을 지닌 공공재도 없다고 여기며, 향후 장기적으로도 안산시 ‘숲의 도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염원합니다.



주요 성과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숲 확충 및 보완 추진

도시숲 확충

254개소 / 179,700㎡



쌈지공원 조성(161개소, 84,171㎡), 정감있는 도심속 작은 수목원 조성(27,342㎡), 생활환경숲 조성(19,020㎡), 녹색 나눔숲 조성(20,620㎡),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10,000㎡), 기타 가로숲 조성, 재건축단지 수목 이식, 명상숲 조성, 시가지 꽃정원 조성, 꽃길 조성, 기타 녹지조성 및 보완 조성 등

도시숲 보완

75개소 / 116,957㎡

근린공원, 완충녹지 보완 등



향후 계획

• 단계별 추진 목표 (1인당 도시숲 면적)

6.5㎡

11㎡

14㎡

15㎡



2016년

2020년

2025년

2030년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녹지율이 가장 높은 안산시는 지역 내에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

시가지 지역 녹지율 52.5% | 대부도 지역 녹지율 78.3%

04 선택과 집중

보물섬 대부도가 안산 신성장을 견인합니다



Q5. 시장님께서 대부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부도 개발의 목표와 수단은 무엇이며 그것이 전체 안산시민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부도의 가장 큰 가치는 안산의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도가 있어 안산이 인문적·산업적 다양성에 바다, 갯벌, 습지 등의 자연적 다양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간 대부도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지원 거점형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대상지 선정’, ‘해양안전체험관 유치’, ‘대한민국 생태관광지역으로 대부도 지정’ 및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안산시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대상 수상’ 등의 공인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대부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구·관광객·부동산 거래·건축인허가·음식점수 등이 모두 증가하여 대부도 개발의 정책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화간척지 매입 또는 장기임대 협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본격 추진’, ‘자전거 페리호 운항 항로 우선사업 검토 추진’,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장기적으로 ‘대부도 카본제로시티 및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도를 10년 내에 연간 5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 마리나항 조성 등의 각종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많은 일자리와 지역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안산 대부도 자체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도의 고용 규모와 경제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그 성과는 주로 대부도를 품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 전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대상 수상

주요 성과

● 대부도 개발 주요 성과

- 마리나항 사업대상지 선정 / 해양안전체험관 유치
- 대한민국 생태관광지역 대부도 지정 / 안산시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대상 수상
- 외국인 관광객 소비성향 빅데이터 분석, 안산시 2위
- 경기도 관광지 방문순위 10선, 대부도 5위
- 친환경 첨단 연안 양식단지(Bio Flocc) 유치



마리나항 조감도

탄소제로도시 조성

- 연료전지 발전소 활용 에너지 공급(스마트팜)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에너지(풍력) 타워건립
- 풍도에너지 자립섬(융·복합지원사업) 조성 / 소수력 발전소 건립
- 전기 관광버스 운영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위 치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시화방조제 전면 해상)
- 사업기간 2016 ~ 2020 착공 2018, 상반기
- 총사업비 99,795백만 원(국비 29,547, 자체자금 70,248)
- 시설규모 114,993㎡(마리나빌리지 등)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추진

- 위 치 안산시 대부북동 1984번지(방아머리공원, 면적 : 70,468.2㎡)
- 사업기간 2016 ~ 2019(4개년)
- 총사업비 40,000백만 원(국비 30,000, 지방비 10,000)
- 시설규모 지상 3층, 연면적 9,550㎡(해양자연재난체험장 등)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 위 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148번지 일원(14투치장 내)
- 사업기간 2016. 2 ~ 2018. 8(2년 7개월)
- 총사업비 225억 원(수자원공사부담 172, 시비 53)
- 시설규모 부지면적 : 33,000㎡, 건축면적 : 4,596㎡(체육관, 수영장 등)



소통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



민선6기 핵심은 '사람'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실현하고 있는 안산시는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 장소나 참여인원에 상관없이 매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 총 148건의 건의사항 중 54건은 추진완료했으며 43건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해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제안자들이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며 '333 소통 프로젝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1~29회 이야기마당 참여자와 함께 '서른 살 안산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펼친다.

문의 : 미래전략관(031-481-3401)
홈페이지 <https://sotong.iansan.net/>



최연소 **14**세



최고령 **86**세



총 **24** 회 개최



총 **2,575**명 참여



총 **177**명 발언

건의사항

총 **148**건



추진완료



추진 중



업무반영



추진불가

오늘도 우리의 대화는 맑음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안산의 미래를 바꿉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 실현

사람중심 이야기마당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민선6기 4년 중 2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시민들의 격려가 가장 큰 선물 아닐까 싶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담아보았다.

민선 6기 2주년 축하축하

타티아나(51세, 원곡동)

안산은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고 숲이 많아 편안한 도시입니다. 러시아어와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는데 다문화도시 안산시에서라면 내 꿈을 펼칠 수 있겠죠?



고동림(46세, 고잔동)

신도시에서 부동산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주변 상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어 누구나 활짝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파이팅!!!



김지혜(56세, 팔곡2동)

제종길 시장님! 녹색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나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시장님 파이팅입니다.



황현식(사2동)

민선6기 2주년을 축하합니다. ‘일자리가 복지다’ 라고 하는데 그 말 너무 와닿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는데 안산시민이 모두 웃을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십시오. 파이팅!



구본아(21세, 사동)

자전거가 없는 저에게는 단기간만 타고 싶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페달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서울에 자주 가는데 신안산선 개통이 매우 기대됩니다. 안산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최중원(25세, 본오동)

대학 4년 졸업예정자입니다. 저와 같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배우고 익힌 공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에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김이구(50세, 고잔동)

단원 김홍도의 고향을 표방한 만큼 타 도시와 차별화된 미술진흥 정책이 구체화되어 지역미술인들에게도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예환(59세, 사3동)

제종길 시장님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산의 예술인으로서 안산시가 미래에도 상상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김종한(83세, 사1동)

지금은 나이드는 사람에게겐 참 좋은 세상입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는 보건소가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유영미(37세, 대부북동)

시장님 대부도엔 모기와 각종 벌레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벌레들로 인해 고통이 심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정(36세, 본오동)

비 온뒤 땅이 굳듯, 다사다난했던 안산이 더 푸르러지고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배은진(47세, 대부북동)

타지역으로 국궁을 하러다니는데 텃세야닌 텃세도, 거리상도 쉽지않아요. 대부도에도 예전에 있었다는데 지금현재는 없답니다. 대부도 관광과 접목해 체험도 하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국궁장을 만들어주세요~



김영희(59세, 성포동)

시장님! 앞으로 안산의 교통이 편리해진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더 살기 좋은 안산이 되길 바라고 특히 KTX가 초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취임 2주년도 축하합니다.



이계곤(62세, 사동)

상상이상을 꿈꾸는 안산특별시를 만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더불어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안산시민의 삶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안산다, 안산다 하며 사는 게 안산이라는데 사람들이 편안히 사는 안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욱 더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숲과 접하는 그런 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6기 시장님의 2주년을 축하하며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제종길 시장님 파이팅!!!





호수공원야외수영장

비싼
워터파크NO!
저렴하지만
최고의 만족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초지동 물썰매장에서 즐기는 물놀이



일찍 찾아 온 더위가 반갑다. 안산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안산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초지동 물썰매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7월 9일 정식 개장에 앞서 6월 26일(일), 7월 2일(토), 7월 3일(일) 이벤트 개장을 해, 때 이른 더위를 피해 찾아 온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성인 풀(1.3m), 유아 풀(0.4m), 청소년 풀(0.8m)과 어린이 물놀이장, 분수대, 그늘막, 여성탈의실, 남성탈의실, 샤워장, 간이매점을 갖춘 야외수영장은 8월 21일까지 운영된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과 간단한 음료 과자 정도는 반입이 허용되고 유리 포장제품이나 취사도구를 가져와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금지된다.

이용 요금은 성인 7천 원, 청소년 4천9백 원, 어린이와 노인 4천2백 원이다,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천5백 원, 그린카드 소지자와 행복 플러스 카드 소지자는 각각 10%와 50% 할인이 된다.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하면 50% 할인된 3천5백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 여름철에는 물썰매장으로 안산 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흥 광명 부천시민에게도 인기가 높은 초지동 물썰매장은 100m에 이르는 에어워터슬라이드를 새롭게 마련해 오는 7월 16일 개장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8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주요시설로 종합물놀이장 외에 야외수영장 2곳, 매점 휴식 공간 등을 갖췄다.

요금은 성인 7천 원 청소년 5천 원 어린이 4천 원이다. 평일 20인 이상 사전예약을 하면 선착순 500명까지 50% 단체할인이 된다. 운영을 맡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강영준 팀장은 “찾아주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더욱 세심하게 개장을 준비했다.”

며 이용수칙을 잘 지켜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도심 속 피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6일 야외수영장이 이벤트 개장을 했을 때 지인 가족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찾았던 홍희정(42세) 주부는 “집 가까이 이렇게 시설이 괜찮은 야외수영장이 있어 참 좋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중교통편이 뜸한 것인데 수영장 개장 기간만이라도 중앙역이나 주요 전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레이크타운 아파트를 지나는 77번 71번 62번 버스와 호수공원 주차장 앞에서는 123번 88번 버스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초지동 물썰매장은 초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다. 77번 123번 501번 마을버스 1번이 초지역을 지난다.

☎ 문의 : 안산 도시공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031-8085-7480~2)
초지동 물썰매장(031-8085-7444)
백미란 명예기자 _whity0218@naver.com

수영장을 이용하실 땐 꼭 지켜주세요!

-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세요.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어요.
- *수영조 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해요.
- *음주 후에는 절대로 수영조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 *귀중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이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 *수영조에 들어갈 때는 꼭 수영모를 착용하세요.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해요.
-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 *고무튜브 또는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링 등)를 사용할 수 없어요.
- *체력관리를 위해 수영 30분 뒤엔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요.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어요.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와동 물놀이 공원

무더위라서
더 좋은 공원 속
물놀이 천국

공원 내 수경시설 5곳 개장 오는 8월까지 운영

*노적봉공원내 도설지는 폭포 재조성 공사로 올해는 휴장합니다.



올해는 어디로 피서를 가야하나?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차 막히며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피서가는 맛이 난다고 하지만 이번 여름은 고생하며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더운 날씨로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 시설이 일찍 개장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반월공원 내 물놀이장이 지난 6월 22일 준공돼 공원근처 어린이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월공원 내 수경시설은 7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성호공원의 다른 공원안의 물놀이 시설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여름엔 가깝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피서를 가보는 건 어떨까.

☎ 문의 : 공원과(031-481-2468)

1 반월공원

위 치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
 운영기간 2016. 7. 9 ~ 8. 28
 이용시간 10:00 ~ 17:00
 운 영 일 매일(*월요일 및 우천시 휴무)
 주요시설 도설지, 분수, 워터드롭 등

4 호수공원

위 치 상록구 사동 1509번지
 운영기간 2016. 6. 5 ~ 8. 31
 이용시간 13:00 ~ 15:00
 운 영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요시설 연못내 분수, 도설지

2 광덕공원

위 치 단원구 고잔동 641번지
 운영기간 2016. 5. 11 ~ 9. 30
 이용시간 10:00 ~ 17:00
 운 영 일 매일
 주요시설 분수, 폭포

5 와동 물놀이장

위 치 단원구 813-1번지(와동공원내)
 운영기간 2016. 7. 9 ~ 8. 28
 이용시간 10:00 ~ 17:00
 운 영 일 매일(*월요일 및 우천시 휴무)
 주요시설 어린이풀, 물놀이풀, 유아풀, 야외데크

3 성호공원

위 치 상록구 이동 615번지 (식물원뒤)
 운영기간 2016. 5. 5 ~ 9. 30
 이용시간 10:00 ~ 17:00 / 화, 금(12:00 ~ 17:00)
 운 영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방학기간 : 매일)
 주요시설 도설지, 바닥분수

6 원고잔공원

위 치 단원구 고잔동 산87-3번지
 운영기간 2016. 6. 1 ~ 8. 30
 이용시간 10:00 ~ 17:00
 운 영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방학기간 : 매일)
 주요시설 분수, 놀이터, 족구장 등

안산의 옛 풍경을
더듬어 보는 시간

안산(安山) 유람(遊覽) 하실래요?



단원미술관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산유람’ 여름기획전을 연다.

이번 여름기획전은 과거 단원(檀園)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찾거나 상상해 단원의 풍경과 현재의 풍경을 다양한 현대 미술 작업들로 미술관을 채운다. 아카이브와 더불어 전시작품들이 단원미술관 1관을 채우고 미술관 앞마당 야외에는 대형 설치물이 전시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공간 안에서 지도와 고서화를 통해 천년 안산의 모습을 찾아본다.

단원, 서해 언덕에 펼쳐진 안산의 옛 숲

‘단원’이라 하면 가장 먼저 김홍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단원(檀園)은 김홍도(金弘道)의 호(號)로, 안산의 행정구역 중 단원구(檀園區)의 단원과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단원을 글자대로 직역하면 ‘박달나무 동산’을 말하는데, 문헌에 따르면 1750년경 서해 언덕에 펼쳐진 안산(安山)의 옛 숲이었다고 한다. 오늘날 그곳의 풍경은 어떠한가? 과거 울창한 박달나무 동산을 대신해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물이 흐르고 산이 우거진 과거 안산의 풍경은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안산의 옛 풍경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안산 풍경 사진 수집,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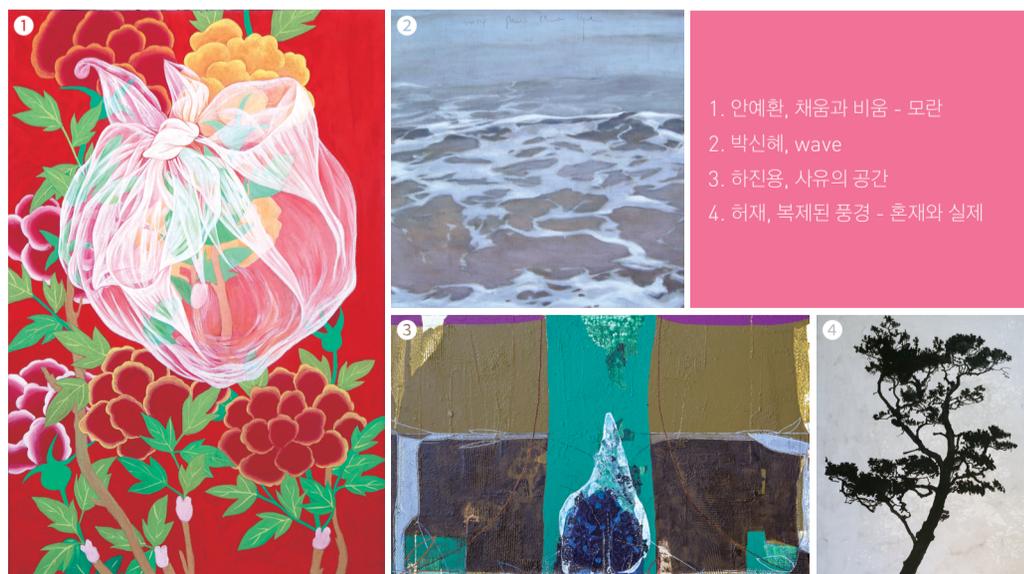
여름기획전 ‘안산유람’은 오픈 전부터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산에 살았던 사람 혹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산 풍경의 사진들을 수집하여 아카이브할 예정이다. 안산 시민들이 만든 안산의 풍경, 너와 나, 우리의 기억으로 만드는 안산의 풍경을 통해 과거 안산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는다.

Information

전시기간 7월 22일 ~ 8월 31일

관람료 일반 2,000원 / 초·중·고, 미취학아동, 군인 5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무료 관람(동반 1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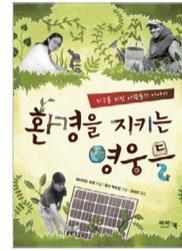
문의 단원미술관(031-481-05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7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영웅이 필요해



환경을 지키는 영웅들

저자 해리트 로머 / 출판사 아이앤북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환경을 망치는 문제에 맞서 싸우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공을 이룬 열두 명의 영웅을 소개한다. 우연히 알게 된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지구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을 지키게 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인 10

저자 서경덕, 한국사 분야별 전문가 / 출판사 엔트리

세계 속 자랑스러운 한국의 영웅들을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책은 더 나아가 세계사 속에서 한국의 영웅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교과서로는 알 수 없었던 영웅의 일생이 자세히 설명된 책을 통해 이름만 들어봤던 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전쟁의 신, 이순신

저자 설민석 / 출판사 휴먼큐브

이순신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받은 10명의 인물을 설정해 소설형식으로 재구성한 후 역사적 배경을 강의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었다. 여기에는 이순신의 어머니가 바라본 아들의 모습, 류성룡이 바라본 전쟁의 신, 적장 구루시마가 느낀 이순신, 정조가 겪은 조선의 충신 등 이순신의 삶 곳곳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변 인물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자료제공_중앙도서관

안산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에 이민근 의원 선출

11일 열린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이민근 의장 “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일하겠다” 밝혀

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민근 의원이 당선됐다.

시의회는 11일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를 실시, 이같이 확정했다.

3선 의원인 이민근 신임 의장은 5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6대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이민근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장직은 작게는 시의원 21명을, 크게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고 이를 치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의회는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부의장 선거와 안건 의결, 상임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 등은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위해 현장 활동 실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대부해양관광본부로부터 화랑오토캠핑장에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캠핑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간뒤 2년 넘게 아무런 활용도 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물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안산도시공사와 관련부서의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또한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는 감사원 감사이후 풍차가 철거된 현장과 관리 실태, 관광객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본 뒤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했다. 이보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성포동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부서로부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금번 현장에서도 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안산을 널리 알리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시는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이 기존의 인조암을 철거한 뒤 지반 보강 후에 약 9m 높이 자연석 5,680톤을 쌓아올리는 사업으로 현재 30%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10월 말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수첩

다시 진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800여 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거리 한가운데다. 1년 중 가장 추웠던 날과 가장 더웠던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항상 노란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 계시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었다. 아마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끝내고 싶은 분들은 유가족일 것이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3년째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누군가의 말처럼 사고로 자식을 잃은 사람이 다 길에 나와 정부를 물고 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또 누군가의 말처럼 이게 배·보상 문제 때문이라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의 38%가 세월호 배·보상 신청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결같이 유가족들이 말했던 것은 ‘왜 아이들이 그런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소설가 박민규 씨는 2년 전 ‘눈 먼 자들의 국가’라는 글을 통해, ‘세월호는 애초부터 사고와 사건이라는 두 개의 프레임이 겹쳐진 참사’라고 정의 내렸다.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직접적인 침몰 원인

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간간히 뉴스를 통해 들리는 사실은 더 많은 의문들을 남겨놓았다. 국내 이천톤 급 이상 여객선을 통틀어 세월호가 유일하게 유사시 국정원에 우선 보고해야 하는 배였다는 사실, 당시 과적된 세월호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가는 철근 278톤이 실려 있었다는 것 등이 최근에서야 조금씩 보도됐다. 안개가 짙은 밤, 기상악화로 발이 묶인 다른 배들과 달리 왜 세월호만 그날 홀로 인천항을 출항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편린들이었다. 그렇게 아직도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규명이 산적해 있는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산위기에 놓였다. 특조위는 조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조사 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 그리고, 지금도 팽목항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뺨 조각이라도 안아보길 원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되기를 심장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애초 7월에 완료 예정이었던 세월호 인양 시점도 선수를 드는 과정에서 선체가 몇 군데 파손되면서 진행이 중단돼 8월말로 시기가 늦춰졌다. 곧 태풍도

불어올 텐데 하루빨리 세월호가 인양되어 올해는 9명의 미수습자들이 가족들 곁에서 안식하게 되길 기도해 본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전국 구석구석에서 홀로 수많은 울음을 삼켜야 했던 유가족분들이 별이 된 아이에게 들려줄 진실을 갖고, 조금은 안식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그리고, 안산 공동체가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도시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안산의 과제 / 꾸리찌바를 사례로



안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이다.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직주근접형 배후도시로서 주거, 근린, 상업, 산업이 조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구성하고, 독특한 도로구조를 비롯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현실공간에 구현한 도시이다. 덕분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산은 서해안 중심도시로서 성장하면서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발전해왔다. 만약 치밀한 도시계획이 없었다면 오늘날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안산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브라질의 꾸리찌바도 이러한 도시계획의 이점을 사회 경제 전반으로 넓혀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낸 도시이다. 배후공업단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나 넓은 도시숲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활발하다는 점, 한정된 공간을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에서 꾸리찌바는 안산과도 꽤 많이 닮았다.

꾸리찌바는 세계 유수단체들로부터 ‘우수환경과 재생상(賞)’, ‘세계에너지효율상’ 등을 수상하고 ‘지구상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는 찬사를 들으며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쾌한 도시의 표본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마을 도서관 설치, 자조주택건설, 보행자전용거리 등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많은 사업이 사실 꾸리찌바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또한 탄약창, 창고, 채

석장,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로 알려진 장소를 재활용하고 저렴한 재료나 폐기물을 이용하여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모아오면 이를 농산물이나 버스트크, 학용품꾸러미로 바꾸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해 소득을 창출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통합적 공보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마을주치의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기도 한다. 1인당 도시숲면적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넓다는 것도 자랑 중의 하나로 꼽힌다.

도시인프라, 사회, 경제,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이 아이디어들은 사실 꾸리찌바의 도시계획연구소 이뿌끄(IPPUC, Instituto de Pesquisa e Planejamento Urbano de Curitiba)에서 만들어 집행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한 계획의 결과물들이다. 이뿌끄는 1964년 설립되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리찌바의 거의 모든 사업을 만들어 집행하고 수정해왔다. 이름은 도시계획연구소이지만 실제로는 도시개발정책, 도시환경 및 생물다양성정책, 사회·경제정책, 사회안보 및 도시방어, 도시의 민주적 관리 등 도시의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사업 원칙, 가이드라인, 목표를 만들고 세부계획과 수행방안을 작성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와 정보수집, 기관 간 업무조정, 프로그램 간 통합성 조정,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수행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연구소로 말

미암아 오늘날 꾸리찌바는 위에서 언급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브라질 도시들 중 경제규모 4위에 이르게 되었으며, GRDP는 10년 간 50% 이상 성장하였다. 가구소득 역시 브라질 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도 3%에 불과하여 성공적인 도시계획이 독특한 사업추진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구 180만의 꾸리찌바 전체 예산이 안산보다 약간 더 많으며, 대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연구소가 시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긴요한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수행하되, 토지와 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민간을 적절히 끌어들이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뿐 아니라, 사업수행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안산에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브랜드 안산의 재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사업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성과를 고찰하고, 재정효율적이며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새로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성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드디어 페달로에 입성

이옥자(단원구 광덕대로)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바람이 좋고 상쾌하다. 마음도 기분도 자전거를 타고 뽕뽕 달리는 것 같다. 또 다시 무언가 해낸 느낌이다.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소년의 설레임이랄까. 애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다. 몇 년 전 페달로가 생기고 많이 사람들이 녹색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봤다. 나야 뭐 10년 쯤 된 빨간 자전거가 있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처음으로 산 자전거이기도 하고, 자동차와 접촉사고로 폐기할까 하다가도 고쳐서 다시 내 걸을 지키게 했기에 이래저래 정이 많이 들었다.

어느 날 친구는 남편에게 자색 자전거를 선물받았다. 내 자전거를 보고 남편이 인터넷으로 사줬다고 자랑을 한다. 자기 자전거가 있는데도 친구는 작년에 페달로에 가입해 공용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자기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여기저기 자전거 정거장이 있어서 편리하다며 자랑을 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낭비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내가 친구를 따라 페달로에 가입했다.

직장이 가까워서 출퇴근 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때로는 걸어서 가기도 했다. 자전거를 놓고 간 날은 아쉽기도 했었는데, 페달로가 가격대비 좋고 편리해서 많이 이용했다는 말을 듣고 어제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하는 것까지는 무난했는데, 결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 결국엔 핸드폰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결제를 완료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등록을 하고 페달로를 탔는데, 왜 진작 이걸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저녁 무렵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마음이 상쾌하기만 하다. 오늘도 페달로를 타고 마트에서 도서관까지 왔다. 이제 또 문화광장에 가고 안산 이곳저곳을 뽕뽕 달려갈 것이다. 작은 세상이 또 하나 열린 것 같다. 지금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페달로를 타고, 매일매일 자전거 여행을 진하게 할 것 같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고 교통수단이 되었다. 건강을 위해 걷고 싶으나 뜨거운 태양과 범벅이는 땀으로 인해 걸을 수 없는 지금의 날씨 속에서 자전거는 나의 발이 되고 운동이 되었다. 이로써 우리 가족 모두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갈대습지 공원과 수변공원이 즐거운 여행코스가 될 것이다.

안산그리양... 안산특활시

KBS 경기도 안산시편 전국 노래사랑

공개 녹화 2016. 7. 19. (화) 13:00 상록수체육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웅신로 422) 지하철 4호선(상록수역) / 좌석버스 707, 110, 909 / 일반버스 55, 11, 99-2

신형영수 2016. 6. 22(수) ~ 7. 12(화)
접수처: 김동주민센터(방문접수 필수)
대상: 안산시민(초기미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화예술과 T. 031) 481-2068, 2795

일시: 2016. 7. 17. (일) 13: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김국환, 배일호, 홍진영, 박구윤, 연지후

주최: 안산시 | 주관: KBS

"구직자와 기업을 위한 희망징검다리" **대규모**

2016 안산·시흥 채용박람회

2016. 7. 19 (화) 14:00 - 17: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 1, 2전시실

주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시, 안산일자리센터,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016 하반기

여성비전센터 수강생 모집

모집개요

우선모집 7. 13(수) 09:00 ~ 7. 15(금) 18:00 【수강료 면제대상 방문 선착순】
일반모집 7. 18(월) 09:00 ~ 7. 22(금) 18:00 【인터넷 선착순】

| 모집과정 | 인터넷 접수시간 | 인원 |
|----------|--------------------|-----------|
| 직업전문(조리) | 7. 18.(월) 09:00 부터 | 1인 1과목 |
| 직업전문(패션) | 7. 18.(월) 11:00 부터 | |
| 직업기초과정 | 7. 18.(월) 13:00 부터 | |
| 사회문화과정 | 7. 19.(화) 09:00 부터 | |
| 단기특별과정 | 7. 19.(화) 11:00 부터 | |

추가모집 7. 25(월) 09:00 ~ 7. 26(화) 18:00 【인터넷 선착순】
*1인 2과목, 타시군 거주자 가능

대기자 모집 7. 27(수) 09:00부터 【전화 선착순】* 수강 취소자 발생 시 대기자 순으로 등록

교육개요

교육기간 2016. 8. 8. ~ 12. 23. 【과목별 8주 20주】
교육장소 본관(고잔동 여성비전센터), 별관(월피동 민방위교육장 1층)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안산시민(남성 가능) * 피부미용 남성제한
수강료 교육시간에 따라 차등(재료비 교재비 별도)

안산시 평생학습원 여성비전센터
T. 031-481-2761-5 / F. 031-481-3636 / http://www.iansan.net

작은 공감을 큰 공감으로!

ANSAN DREAM TV

안산시 소셜방송

www.ansandream.tv
안산드림TV

NAVER tvcast, Daum tv팟, YouTube

안산시청 공보관 : 031) 481-3126